

# “한글은 지적 혁명... 인류 자산으로 보존해야”



‘일본인 한글 전도사’ 노마 히데키 씨가 자신의 책 ‘한글의 탄생-음(音)에서 문자를 만든다’를 들고 한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한글은 전을 넘치는 지적(知的) 혁명입니다. 인류 전체의 귀중한 자산이요.”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일본인이 있다. 노마 히데키(野間秀樹·57) 전 일본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교수. ‘일본인 한글 전도사’를 26일 만났다.

어떻게 한글과 인연을 맺게 됐나. “대학 시절 독학으로 한글을 공부하다 매력에 푹 빠졌다. 1983년 서른 나이에 도쿄외국어대 조선어학과에 입학했다.”

원래 그는 예술가였다. 1970년대 현대일본미술전에서 상도 받았고 1979년 서울과 도쿄에서 공동 전시회를 연 한일 작가 7명의 멤버이기도 했다. 이런 그가 작가의 길을 접고 한글학자로 변신한 것이다.

—미(美)적인 관점에서 한글을 평가한다면...

“한글은 15세기 당시 전통적인 문자의 미에서 벗어난,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의미를 갖고 있다. 자음과 모음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를 합쳐서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글의 탄생은 산수화의 세계에 컴퓨터그래픽이 등장한 것처럼 파격적이다.”

—한글의 어떤 점이 우수한가.

“한글의 탄생은 15세기의 지적 전

## ■ 일본인 ‘한글 전도사’ 노마 히데키 씨

### “소리를 문자로 만든다는 발상 혁명 말곤 설명 안돼 민족주의 입장 떠나 보편적으로 알려야 한글 발전”

통과는 완전히 차이를 달리하는 혁명 그 자체다. 소리에서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은 그 시대 언어에서 획기적이다. 한글 창시자들은 소리 중에서 의미와 관계되는 모든 요소에 분명한 형태를 줬다. 이것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즉 초성 중성 종성과 지금은 표기가 없어진 성조다. 하나의 음절을 이처럼 네 가지로 분석하는 사본법은 완전히 현대언어학 수준이다.

—한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적 혁명이다. 1000년 한자의 역사에서 한글이 탄생했다는 건 지적 혁명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당시엔 태어날 때부터 100% 한자를 기초로 한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산’을 말하면 ‘山’이란 한자가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한자를 떠나서 개념화가 불가능했다. 지(知) 자체가 한자였다. 훈민정음은 이 모든 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해체했다. 지의 최소단위까지 해체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지의 공간을 바꾼 것이다.”

23일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열린 ‘한글의 세계-기적의 문자 그리고 지적 혁명’ 강연에서도 그는 ‘혁명’ ‘기적’이란 말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인이 대부분인 청중 250명은 한글의 탄생과 원리, 독창성과 감탄하면서 때론 박수를 보냈다.

—한글이 다른 문자와 특히 다른 점은 뭔가.

“한글은 ‘나는 이런 문자다. 누구를 위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고, 나를 이렇게 발음해 달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세계 유일의 문자다. 훈민정음에선 소리가 문자로 되는 근원을 접할 수 있다. 발성기관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근원으로 들어가서 형태를 찾아낸 것이다. 한글 스스로 이론무장을 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훈민정음에 남아 있다.”

—한글 장점에 반대도 많았는데...

“정음혁명파와 한자한문원리주의의 투쟁이 격심했다. 한자한문원리주의자인 최만리는 ‘소리를 이용해 문자를 만든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

다’고 비판했다. 용음합자(用音合字·소리를 이용해 문자를 만든다)라는 말 속에 반대파도 한글의 원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정음혁명파인 정인지(鄭麟趾)는 ‘하늘과 땅 사이에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글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했다. 권력 심장부인 왕궁에서 정치투쟁이 아니라 이런 지적 투쟁이 있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

그가 올 5월 출간한 책 ‘한글의 탄생-음(音)에서 문자를 만든다’는 마니치 신문사와 사단법인 아시아조사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대상’에 선정됐다. 다음 달 15일 시상식이 열린다. 심사위원회는 “한글이 음소, 음절, 형태소라는 세 요소를 분명한 형태로 나타낸 지극히 정교한 문자라는 점을 돌아서야만 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세 요소는 모두 현대언어학의 개념인데, 한글 창제자들이 15세기에 이미 이를 문자로 썼다...”라고 평가했다.

—한글 발전을 위해 조언해 달라.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한글이 최고다. 세종대왕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보편적 객관적으로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절로 한글의 위기가 돌보인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이니까.”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 亞太-아프리카 교육대 29명, 아태교육원 초청 한국 연수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연구소에서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에서 온 교육관계자들이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받고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한국 발전 원동력 배우고 싶어 교육방송-교사연수 전파할 것”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연구소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온 교육관계자들이 한창 컴퓨터 활용 능력 수업을 받고 있었다. 교사 교수 교육공무원인 이들은 서툰 조작성으로 강사의 시범을 따라 인터넷에 동영상 상을 올리거나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이들은 유네스코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 지원하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아태교육원)이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교육’ 초청연수 참가자들이다. 아태교육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두 달간 22개국, 29명의 교육관계자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학교,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며 이들에게 한국의 교육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양대 숙명여대는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을 담당하는 동시에 이들의 개인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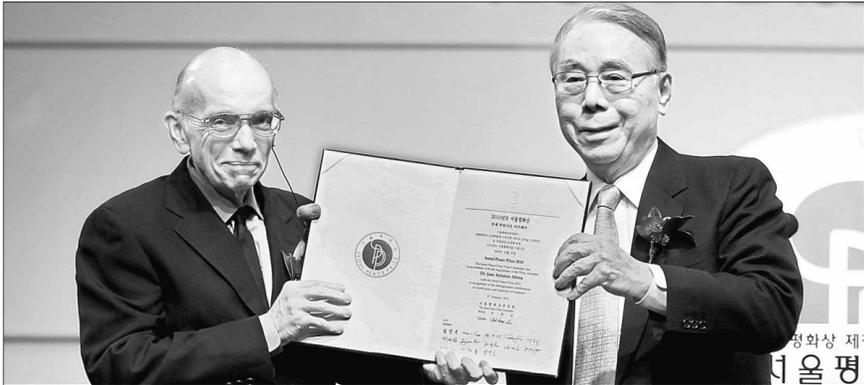
아태교육원 관계자는 “한국은 유네스코 해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국가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라며 “개발도상국에 한국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며 특히 한국 교육은 큰 관

심사”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차드에서 영어교사로 일한 메루 메노지 씨(48·여)는 “차드 학교는 한 교실에서 100명 이상이 공부한다. 의자가 모자라 바닥에 앉고 책도 부족하다”며 “한국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빠른 발전을 이뤘는데 원동력이 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으로 교육방송을 꼽았다. 메노지 씨는 “차드에 TV는 별로 없지만 라디오는 대부분 갖고 있다. 돌아가면 라디오로 교육방송을 하는 방법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학교에 가보니 학생들이 아침부터 자고 있더라. 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우러 다닌다는 데 그런 점은 차드 아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탄에서 온 싱에 돌지 씨(32)는 “한국의 교사 연수제도를 연구하고 싶다”며 “부탄에는 연수가 없어서 교사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데 이번에 배운 연수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서울평화상 시상식 제10회 서울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71)가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철승 서울평화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상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오른쪽 사진). 아브레우 박사는 1975년 ‘엘시스테마’라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빈곤층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가치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일깨워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브레우 박사는 동아일보가 선정한 자신의 캐리커처를 건네받고 “나와 똑같다”며 유쾌한 웃음을 지었다. 양희성 기자 yohan@donga.com



박영주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왼쪽)이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아트홀에서 열린 ‘2010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 송문영 동아일보 대표이사에게 메세나패를 증정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한국메세나협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협의회 결연식 한국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주)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아트홀에서 ‘2010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05년부터 기업과 예술단체가 후원 결연을 해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소외된 계층에 문화적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결연식에서는 독일계 기업 헬켈 코리아와 대안공간 루프가 결연을 하는 등 기업과 예술단체 총 73쌍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모두 45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63개 기업이 참여해 34억 원을 지원했다.

## 사법시험 2차 여성합격률 42% 사상 최고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차에 합격한 여성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사시 2차 합격자 800명 가운데 남성은 463명(57.9%)이었고 여성은 337명(42.1%)으로 집계돼 여성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6년 37.6%, 2007년 35.1%, 2008년 38.2%, 2009년 35.3% 등이었다. 합격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674명(84.3%)

로 126명(15.7%)에 그친 비(非)법학 전공자를 압도했다. 법학 전공자의 비중은 2006년 76.5%, 2007년 77.6%, 2008년 81.3%, 2009년 81.2%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법시험 3차 시험은 다음 달 17~20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같은 달 26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2011년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약 7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中, 마르크스 신봉 교조주의 벗어나 학자들 연구태도도 이젠 달라져야”

### 장이빈 난징대 부총장 방한 인하대서 마르크스 연구자회의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하는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중국 대학 교수 14명을 이끌고 27일 한국을 방문한 난징(南京)대 장이빈 부총장(54·사진)은 이날 인하대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치적 이념을 떠나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 부총장은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이 크게 성장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중국의 속사정을 설명했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중국이 발전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과거의 마오쩌둥 식 사상을 고집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그는 “1980년대 들어 시장개혁과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중국은 마르크스의 이념노선과 원칙을 검증 없이 신봉하는 교조주의에서 사실상 벗어났다”며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연한 기회에 고려대 정문길 명



예교수의 마르크스 문헌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접한 뒤 한국에도 훌륭한 마르크스주의 연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 교수의 저서인 ‘니벨룽의 보물’ 등 2권의 책을 난징대 출판부에서 중국어로 출간했다.

인하대 흥정선 문과대 학장은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우호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마르크스주의의 동질성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한국을 찾은 교수들은 사상을 통해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 두뇌들이 만큼 북한을 넘어 학술 차원에서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교수들은 28, 29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한중 마르크스주의 연구자 회의를 연다. 서울대 김세균 교수, 푸단(復旦)대 우샤오밍 교수 등 양국의 학자 30여 명이 마르크스주의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한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심경호 김수용 박성창 씨 우호 인문학상 수상자 선정

우호문화재단(이사장 신철식)은 제3회 우호 인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문학 부문에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외국문학 부문에 김수용 연세대 명예교수, 비교문학 및 문화학 부문에 박성창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 3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



심경호 교수 김수용 교수 박성창 교수 다. 우호 인문학상은 고 우호 신현화 전 국무총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일제때 문학잡지 ‘개벽’ 발행인 故 차상찬 선생 ‘은관문화훈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제강점기 시사문학잡지 ‘개벽’의 발행인 고 차상찬



선생(사진)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고 27일 밝혔다. 차 선생은 1920년 창간한 ‘개벽’ 외에 ‘신여성’, ‘학생’ 등 10여 종의 잡지를 냈다.

## 故 최영희 교수 유족 한림대에 장학금 1억

국가편찬위원장을 지낸 사학계의 거목 고 최영희 전 한림대 한림과학원 석좌교수의 유족들이 한림대에 장 학금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최 전 교수의 부인 이상만 씨(84)는 28일 한림대 사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

학금 1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27일 학교 측이 밝혔다. 한림대는 내년 부터 사학과 학생 가운데 1명을 선발해 졸업 때까지 학기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전 교수는 생전에도 1770년 간행된 반계 유형원의 문집 ‘반계수록’ 초간본 등 한국학 관련 국내외 자료 6000여 점을 한림대 일송기념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東亞日報**  
The Dong-A Ilbo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사장·발행·편집인 金載昊  
인쇄인 崔浩 主필 襄仁俊 편집국장 沈煥先

전화번호 02-2020-0114  
e메일 주소 newsroom@donga.com

기사 의견 제보 전화 02-2020-0200 팩스 02-2020-1139

독자투고 전화 02-2020-1290 팩스 02-2020-1299 이인팩스 02-2020-1249

구독신청·배달안내 전국 공용 080-023-0555 1588-2020 광고문의 전화 02-2020-0500 팩스 02-2020-1419 무료전화 080-233-8585

구독료 월 15,000원 1부 600원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19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동아일보사 2010 세계권위지류사 뉴욕타임스(미국) 朝日新聞(일본) 이즈베스티아(러시아) 人民日報(중국) 시드니모닝헤럴드(호주)

**알립니다**

**신동아 논픽션 공모 당선작 발표**

본사가 발행하는 월간 종합지 ‘신동아’가 공모한 제46회 2000만 원 고료 논픽션 당선작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최우수작(고료 1000만 원) 죽은 양의 삶 (전지은)
- 우수작(고료 500만 원) 명문서에 이름표를 달아줘 (김성안), 우수작은 한 편만 선정

심사위원 고인환(예심), 하용백 정경진 전진우(본심)

시상식 2010년 10월 28일 오후 4시 동아미디어센터 9층 회의실

당선작은 신동아 2010년 11월호부터 게재합니다.

## 본보 월드컵 지면 한국편집상



월드컵 특별지면 등 8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영남일보 변종현 윤재호 기자의 ‘진실도 때를 때가’라는 기사다. 시상식은 12월 2일 제47차 정기총회 겸 편집기자의 밤’에서 열린다.

- 조승업 차장 이재일 차장
- 최성연 기자 김형래 기자
- 김귀성(사업) 영성(·) 길성 씨(·) 모친상·기호(·) 김승현 대표
- 김성준(·) 김승현 대표 조모상=27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9일 오전 5시 011-387-3960
- 김석근 충남도의원 모친상=27일 충남 금산동백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9시 반 041-751-4944
- 김창순 전 경문출판사 사장 별세·권순일 신라대 교수 순대 씨 모친상·용국 국립의료원 신경과 의사 조모상=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반 02-3410-6908
- 문태우 신성과학 대표 태성 대성 학원 강사 부친상·진승호 큐피에스 지도위원 홍성직 흥가정의학과 의사 장인상=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2-3010-2237

- 인사
- ◇방송통신위원회 △지능통신망 탐정(서기관) 김정렬
- 라운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태석)은 30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아태지역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국가 포상지도자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2010 아태지역 포상제 포상지도자 워크숍(RTA)을 개최한다.
- ◇사단법인 충효예실천운동본부(총재 성하주)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천도교 수운회관 대강당에서 제14차 정기총회와 함께 제12회 충효예 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 ◇조애진 육아방송 이사장은 대한적십자사 여성 봉사 특별자문위원으로 2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공로로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05주년 기념식에서 적십자 장기봉사상을 받았다.
-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이사장 민계홍)은 한국방사선폐기물학회와 함께 11월 1일부터 나흘간 경주현대호텔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7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방사선폐기물관리동아시아포럼을 연다.
- ◇도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29일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등을 주제로 도시관정책 포럼을 연다.
- ◇위형운 서울양천구의회 의장 대영 석은 씨 부친상=27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발인 29일 오전 5시 02-2650-2741
- ◇정대준 전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 별세=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3010-2236
- ◇조상래 씨(사업) 순례 전 연향뉴스 전북취재본부장 모친상·성은주 완주상관중 교감 시모상=27일 전북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63-250-2441
- ◇최종현(취필리스 회장 덕현(·) 펠리스 부회장 부친상=27일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11-277-8821
- ◇한용덕 프루야구 한화 투수코치 장인상=27일 대전 평화원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7시 반 042-250-9114